

1-19-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고린도후서 12:1-10

말씀제목: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은 이코니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의해 돌에 맞아 죽어 잠시 그의 혼이 몸을 떠나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십사 년 전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세 하늘들로 되어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을 말하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며 그가 다녀온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말씀하실 때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주의 것이니...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 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미치겠나이까?...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자...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고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창 2:1, 신 10:14, 판 5:4, 삼하 22:10, 왕상 8:27, 욥 9:8, 시 2:4, 잠 3:10, 사 1:2, 렘 2:12, 애 3:41, 겔 1:1, 욘 2:10, 학 2:6)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육체에 한 가지,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깨닫고 결단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후 12:10)

그는 그가 육신적으로 강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게 보일지언정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빌 4:12-14)

그는 자신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전 15:19-26)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그들 모두가 자신이 갔다 온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빌 3:20-21)

아멘! 할렐루야!